

■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5 - 43 호

「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년 12월 23일

금융위원회

1. 개정이유

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추가자본,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리스크 관리수준에 따른 차별적 감독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, 금융위원회가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것 등을 조건으로 인가한 은행을 지배하여 은행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그 은행지주 회사에 적용되는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2. 주요 내용

가.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요구 (안 제25조제1항, 제25조의2)

금융위원회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를 선정하고, 필요시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할 수 있음.

나.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(안 제25조의3)

금융위원회는 국내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의 수준, 부과 대상, 적립시점 등을 결정할 수 있음.

다. 자본규제 완화(안 제25조의4, 별표 3-5 신설)

금융위원회가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 거래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것 등을 조건으로 인가한 은행을 지배하여 은행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그 은행지주 회사의 BIS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은 2019년말까지는 바젤 I 을

적용하고 2020년부터는 바젤Ⅲ를 적용함.

라. 리스크 관리수준에 따른 차별적 감독 강화(안 제29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)

금융감독원장은 은행지주회사의 리스크관리실태를 평가하고, 금융위원회는 리스크관리실태 평가결과가 미흡한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본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.

3. 세부 개정 내용

□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‘고시·공고·훈령’을 참조*

* 금융위원회(www.fsc.go.kr)→지식마당→법령정보→고시·공고·훈령